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 Study Korea : Talent Project -

2026. 9.

교 육 부
[국제교육기획관]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현황 및 문제점	3
III . 비전 및 추진전략	7
IV . 추진내용	8
V . 향후 계획[안]	20
【붙임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21
【붙임 2】 스터디 코리아 300K 3주년 점검 결과	22

I. 추진 배경



<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 (4.1.기준, KEDI) >

- **(K-유학의 질적 전환 요구)** '23년 「Study Korea 300K Project」의 목표인, '27년 30만 유학생 유치 목표를 '26.4월 기준 30.7만명 유치로 조기 달성
 ※ 유학생 수: ('23) 18.2만명 → ('24) 20.9만명 (15%↑) → ('25) 25.3만명 (21%↑) → **(26) 30.7만명** (21%↑)
- ☞ 단순 유치 확대를 넘어,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로 정책 전환 시급
 ※ **국제 동향** : 불투명한 모집선발 구조, 낮은 국내 정착률, 공공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주요국은 유학생 '양적 확대' 정책에서 '질 관리' 정책으로 전환 중 (OECD, '26)
- **(유학생의 인재화 전략 필요)** 주요국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경제 성장 지원, 기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핵심 인재로 인식(OECD, '25)
 ※ 중국은 고급 기술인재 확보, 일본은 노동시장 편입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등 자국의 정책 수요에 따라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 전략을 추진 ('26, Chen et al.)
-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지역전략산업 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여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육성·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 130곳(57.0%)으로 지역 인력 확보 요구(고용정보원, '24.)
 ※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이 36,450명('20)에서 39,834명('24)으로 매년 증가(산업부, '25)

< 의견수렴 경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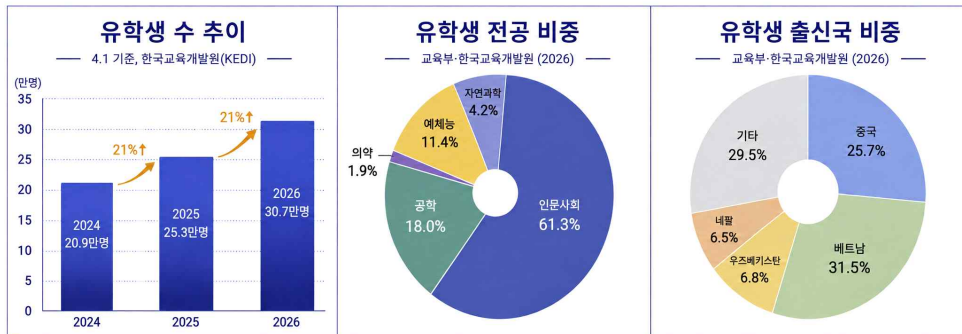
-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6.4(목), 6.12(금), 6.18(목), 6.19(금)
※ KEDI 연구원, 대학 교수(학부, 대학원), 전문대 교수, 대학 국제처 직원 등 총 6명
 - 8.28.(금) 전문가 간담회
- 유학생 업무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앵커 사업단 의견수렴
 - 6.9(화)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앵커센터 간담회
 - 8.4(화) 부산 앵커센터 협의
 - 8.31.(월) 6개 권역 지자체 및 앵커센터 간담회
- 대학 현장 의견수렴
 - 7.13(월) GKS 수학대학 간담회
 - 7.28(화)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간담회
 - 8.11(화) 실무직원, 8.12(화) 국제처장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7.27(월) 법무부 협의
 - 8.19(수) 중기부·법무부·재외동포청 등 협의
 - ※ 국립국제교육원 협의 : 7.7.(화), 7.23.(목), 8.14.(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학위정보센터 협의 : 7.6.(월), 8.14(금)

Ⅱ. 현황 및 문제점

□ 추진 성과

- **(유치규모 확대)** 유학생 유치 인프라 확충, 한국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유학생 규모가 1만6천명('04)에서 30만7천명('26)으로 확대, 유치목표 조기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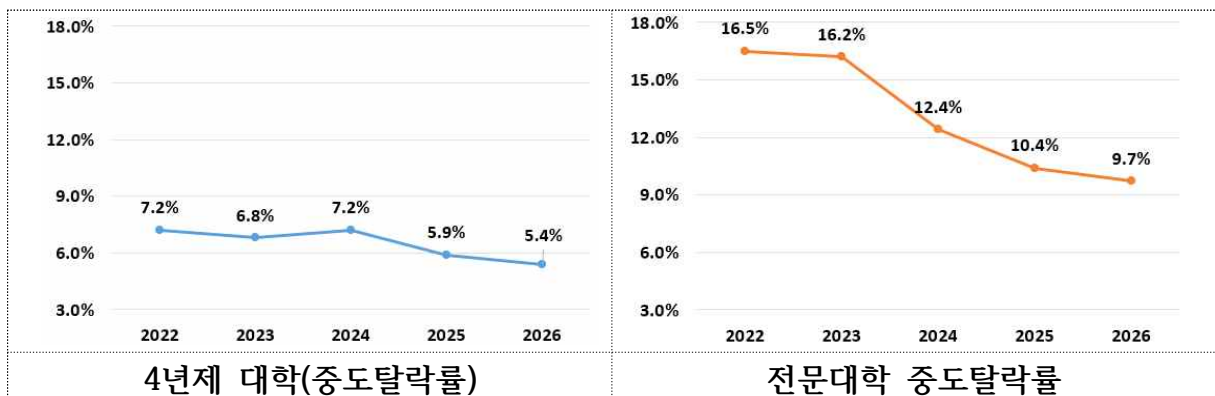
< 유학생 유치 현황('26.4월 기준-KEDI) >



- **(유학생 수)** '26년 307,000명으로 기존목표인 '27년 30만명 유치목표를 조기에 달성
※ ('23) 18.2만명 → ('24) 20.9만명(15%↑) → ('25) 25.3만명(21%↑) → ('26) 30.7만명(21%↑)
- **(과정·학제)** 학위과정 22.3만명(72.6%), 비학위과정 8.4만명(27.4%)
※ 전문대 비율('25 14.7% → '26 16.1%) 및 이공계 비율('25 21.6% → '26 22.2%) 증가
- **(지역 분포)** 비수도권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로 수도권 쏠림 다소 완화
※ 비수도권 외국인 유학생 수(비중) : ('25) 116,043명(45.8%) → ('26) 145,842명(47.4%)
- **(출신국)** 아시아 편중은 여전 출신국 편중은 다소 완화 (상위 3개국: 66.1%('25) → 64.0%('26))
※ 26년 출신국 비중 : 베트남(31.5%), 중국(25.7%), 우즈베키스탄(6.8%)

- **(중도탈락자 감소)** 유학생 증가에도 최근 3년간 중도탈락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학업 지속성과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여건 개선

※ 학위과정 기준 중도탈락률 : 7.1%('23) → 7.0%('24) → 6.1%('25) → 5.8%('26)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위과정 기준

- **(취업·진학자 증가)**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과 진학률이 동반 상승하여 졸업 후 국내 진로 연계 성과도 지속 개선 추세

※ '24년 취업률 33.4%(전년 대비 11.7%p ↑), 국내 상급학교(석·박사) 진학률 15.6%(1.9%p ↑)

연 도	졸업생 수	체류종료자	취업대상자*	국내취업자 (취업률)	국내학위 진학자 (진학률)
2024년	36,271	15,576 (42.9%)	14,966	4,993 (33.4%)	5,643 (15.6%)
2023년	32,885	11,701 (35.6%)	16,604	3,607 (21.7%)	4,509 (13.7%)

* 취업률 산정 모수가 되는 취업대상자에는 체류종료자 등 취업불가능자 제외(출처: KEDI 취업통계 '25.12)

□ 현황 및 문제점

① 유치단계의 투명성 부족

- **(유치단계 부당 행위)** 유학생의 모집·선발 경로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일부 유학원의 허위 학위 제출,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취업 유도 등 사례 발생
- 특히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모집·선발 과정은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지 않아 해외학력 검증 및 유학원 관리 등에 사각지대 존재

※ 대학 전수조사(340교 응답, '25년도 학위과정 기준) 결과, 유학원 활용 학교 149교(43.6%)

- **(제한된 정보 제공)** 해외 거주 중인 유학 희망자가 국내 대학의 교육 여건, 학과·진로 등을 직접 탐색·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유학생 8,300명 설문 결과, 17.8%는 유학소개업체 추천이 대학 선택의 주 요소(연구재단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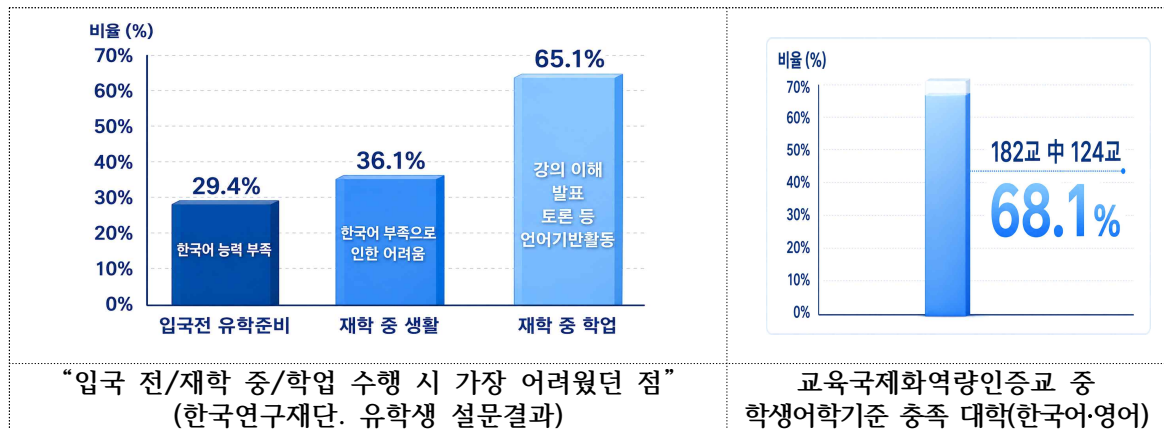
②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 미흡

- **(교육의 질 관리 미흡)**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인증교 증가*에도 일부 대학에서 '수업 몰아 듣기' 등 부적정 학사운영 및 교육의 질 논란** 지속

* 인증교('25): 총 182교(52.9%), 4년제 133교(71.1%), 전문대 33교(28.2%), 대학원대 16교, 40%

** "수업은 하루, 나머지는 알바하세요" 대학들 유학생 쟁탈전"('26.5.6., 조선일보)

- 학업 수행과 진학·취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신입생·재학생 모두 부족하고, 대학의 한국어 교육·지원 체계도 미흡



- (미인증 대학의 부당행위) 대학기관평가 미인증 등 기본적 교육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대학에서도 유학생을 지속 유치, 부실 운영 사례 발생

※ 방글라데시 학생(300명) 비자발급 거부 후 대학에서 등록금 미환불 ('26.7)

→ 해당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 미인증대학, 기관평가미인증대학, 경영위기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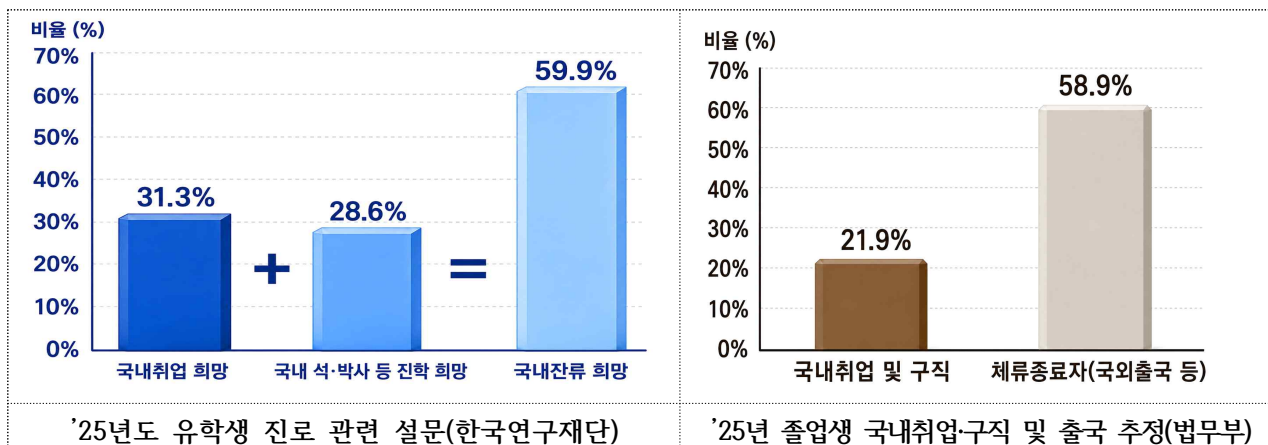
③ 유학생의 체계적 적응지원 필요

- (지역사회 적응기회 부족) 유학생 지원이 대학 내 학업·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교류·참여 기회가 제한적

※ 차별 경험 : 외국인 전체 17.4% 유학생 27.7%로 체류자격 별 구분 중 최대(국가데이터처, '25)

- (취업정보 부족)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채용정보·취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구직의 어려움 발생

※ GKS 장학생도 83.8%가 한국 취업을 계획하나 취업 성공비율은 28.3%(국립국제교육원 '25)



④ 우수인재 집중지원 체계 미흡

- (잠재력 대비 유치 부족) 한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었으나, 첨단·전략분야 등 미래인재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 유치는 제한적
 - ※ 이공계 유학생 비율(22.2%)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문사회계열(61.3%)에 편중
- (우수인재 지역연계 한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취업 선호* 등으로 지역산업의 인재수요와 유학생 정책간 연계 미흡
 - * 한국 취업계획을 밝힌 응답자 중 60% 이상이 서울 취업을 희망(KEDI, '25)
- 유학생의 전공·역량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연계하는 교육과정·인턴십 부족
 - ※ 재학 중 유학생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인턴십 등 부족(한국무역협회 '24)
 - ※ 한국은 유학 목적지로서의 높은 매력도를 보이나(OECD, '25, 37개국 중 9위), 해외 고급인재가 일하고 정착할 국가로서의 매력도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IMD, '26, 70개국 중 44위)
-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미흡) 학업을 마친 우수 외국인 인재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이 부족하여,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용에 한계

Ⅲ. 비전 및 추진 전략

비 전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국제교육 허브 대한민국**

목 표 우수 인재의 **유치-성장-진출**이 이어지는 **글로벌 인재 선순환체계 구축**

4대 전략	‘유치 확대’에서 ‘인재의 성장과 진출’ 중심으로 정책 전환		
	① 유치과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② 대학의 교육관리역량 향상	③ 유학생의 적응·진로지원 강화
	▶ 해외학위검증 내실화 ▶ 유학생 유치 책무성 강화 ▶ 유학경로 및 유학정보 확대 ⇒ 투명하고 공정한 유학생 유치기반 마련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 (교육의 질과 성과 중심 평가) ▶ 부실대학 제재 강화 ⇒ 교육의 질과 책무성 강화로 유학 경쟁력 제고	▶ 유학생 생활적응 자원 강화 ▶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 안정적 적응과 진로 지원으로 국내 정착 기회 확대
	④ 우수 해외인재 유치·성장·진출 집중지원		
	▶ 전략적인 장학지원 확대 - 최우수 장학생 GKS 수혜 확대 - 연구장학, 비자 연계 지원 강화	▶ 해외인재 우수학과 집중지원 - 우수 교육과정 발굴 및 지원 - 대학·기업·지자체 공동 보증제	▶ 우수인재 네트워크 구축 - 한국학 등 국제학술네트워크 추진 - GKS 동문과의 교류·협력 확대 ⇒ 우수 인재의 유치부터 성장·진출·네트워크까지 연계 지원

추진 기반	법적 기반 확립(고등교육법 등)	지역 발전과 연계
	▶ 유학생 유치·관리·지원 기본 계획 수립 ▶ 유학생 관리, 학위검증 지원 근거 법제화 ▶ 유학생 모집·관리의 실효성 제고	▶ 중앙-지자체-대학 간 정책 연계 강화 ▶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운영

기대 효과	우수 유학생의 안정적 유치	글로벌 인재의 성장과 역량 강화	국내 정착 및 지역산업 진출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과 경쟁력 제고
----------	-------------------	----------------------	-----------------------	------------------------

IV. 추진 내용

전략 1 유치과정의 신뢰성 · 투명성 제고

- ❖ 모집·선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 **부정입학·부실유치 차단**, 유학생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유치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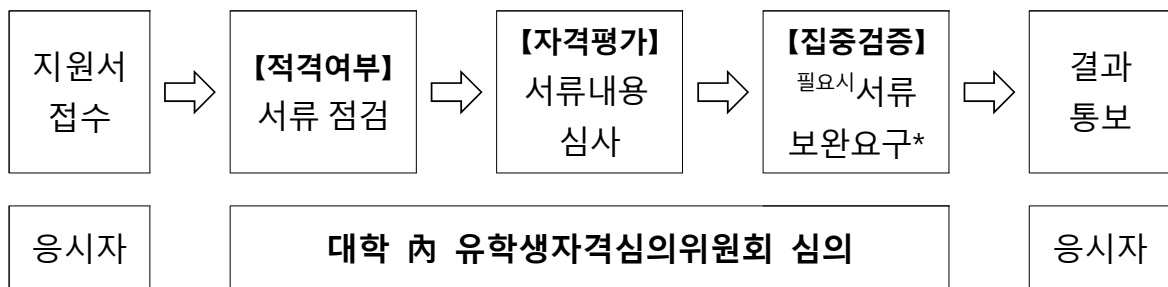
□ 해외학위 검증 내실화

대학의 해외학위 검증절차를 체계화하고 검증업무 지원 역할 강화

- (**신규**대학 내 절차 내실화) 학내 자체 검증위원회 운영 등 입학자격 검증 절차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 대학 의견수렴('26. 4. ~ 9.) → 대학현장 안내('26. 10.) → 컨설팅 제공('27. 3.)

< 대학 별 학위검증절차 제도화(안) >



* 추가 확인 필요사항 발생 시 국가학위정보센터(KARIC) 질의 등 활용

- (**강화**대학 검증역량 강화) 대학 현장 간담회('26.8.~9.), 국제업무 역량강화 워크숍('26.11.), 맞춤형 컨설팅('27.3.) 등 대학 현장 지원 강화
- (**강화**검증 지원기반 강화) 국가학위정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해외 학위 정보제공 및 대학의 학위검증 업무지원 확대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학위정보센터 법제화 등 추진('26.下~)

□ 유학생 유치 책무성 강화

대학-유학원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치과정에 대한 책무성 제고

- (**신규 표준협약서 도입**) 유학원의 허위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학-유학원 간 「유학원 모집대행 표준협약서*」 활용 권고
- (**신규 관리 실효성 확보**)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유학원 모집대행 표준협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 검토

* 대학 현장의견수렴 및 표준협약서(안) 안내('26. 10.)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26. 下 ~)

유학원 모집대행 표준협약서 주요내용(안)

- ▶ (**과장광고 제한**) 대학 및 유학원은 유학생에게 교육과정 및 학위정보, 학업 중 취업가능요건 등 유학원 모집과정에서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등록금 직접환불**) 대학 및 유학원은 등록금 환불 절차·방법·환불금액 등을 사전 고지,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입학 취소 시 대학이 유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환불**
- ▶ (**모집과정 모니터링**) 유학원은 대학이 요청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고, 대학은 유학원의 모집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및 확인

□ 유학경로 및 정보제공 확대

신뢰할 수 있는 유학경로 및 정보제공 확대로 선발의 투명성 확보

- (**강화 유학경로 확대**) 해외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등 대학간 협력에 기반한 유학생 유치 경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대학 간 교류 지원 강화

※ 공동교육과정 유학생 수 : 827명('24) → 943명('25) → 1,057명('26)

- 한국교육원,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대학의 수요를 반영한 'B2B박람회 (대학-대학)'를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간 실질적 협력으로 연계

※ 한국 H대 - 태국 R대 "3+1 한국어과정" 협정 체결 등 공동교육과정 확대 지원 성과('25)

- ▶ (**교류 지원**) '25년 국내대학 112교 국외대학 71교 연결·협의 지원(중복포함)
→ '27년 국내대학 135교 국외대학 85교 연결 지원 목표
- ▶ (**B2B 박람회**) '25/'26년 각 7개국 → '27년 10개국 개최로 대학 간 연결 확대
- 지역특화형 박람회 : '25년 부울·경 → '27년(안) 충청권, 광주·전남, 부울·경 3개권역

- (**강화정보공시 확대**) 유학생이 직접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학생 관련 대학정보공시를 확대하고 현지어 정보 제공으로 정보 접근성 제고('27년~)
 - 유학생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해외 소재 외국인 유학 예정자의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 추진
- ※ (**현행**) 학교별 유학생 수, 중도탈락율, 기숙사 수용여부 등을 영문·중문으로 제공
 (**개선(안)**) 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상세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알리미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studyinkorea.go.kr)**에서 제공 중인 접속지역 기반 **다국어 번역 서비스**와도 연계 추진(30개 언어)
- (**강화입학서비스 편의성 제고**)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 내 입학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대학 탐색부터 원서접수·전형료 결제까지 지원
- ※ 입학서비스 사용자 수 : ('22.) 8,168명 → ('24.) 10,671명 → ('26.上) 12,055명(6개월)

유학 스토리 유학을 준비 중인, 유학 중인, 유학을 마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Study 스토리  Study in Korea promotional video Study in Korea International Education Insurance System 학업에서부터 기숙사 생활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보험 서비스 더 많은 기회의 나라 "한국" 한국에서 공부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Study in Korea 내가 한국에서/나의학교에서/나의지역에서 유학 중 내가 한국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지역에서 좋아하는 것들	Những câu chuyện du học Khám phá những câu chuyện từ các sinh viên quốc tế tương lai, hiện tại và cựu sinh viên đã từng học tập tại Hàn Quốc. Nghiên cứu các câu chuyện  Study in Korea promotional video Study in Korea Hàn Quốc: Vùng đất của nhiều cơ hội hơn Tôi muốn học tập tại Hàn Quốc và phát triển bản thân như một thành viên của cộng đồng quốc tế  Study in Korea Tôi yêu Hàn Quốc Những điều tôi yêu thích về Hàn Quốc, trường đại học và khu vực tôi sinh sống trong suốt thời gian học tập  Study in Korea Sau khi du học Tôi cảm thấy tự hào vì đã trưởng thành và trở thành một người có văn hóa thể hưởng dân các bạn trẻ dựa trên kinh nghiệm của chính mình.
현재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유학 홍보자료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다국어 자동번역(베트남어)

전략 2 대학의 교육·관리역량 향상

-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교육의 질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로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 제고**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평가체계와 지표를 개편**하여,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

※ 제4주기 : '25. ~ '28. / 제5주기 : '29. ~ '32.

- (**개편평가체계 개편**) 학업·유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 취지에 맞게 現 선택형 지표 중 핵심 사항은 필수지표로 전환(제5주기)

※ (현행) 필수지표 1개 / 선택지표 9개 중 6개 선택(3개 영역별 2개 이상 선택)

현행(4주기, '25~'28)	개선안(5주기, '29~'32)
▶ 대학이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평가	▶ 핵심 평가지표를 필수지표 로 전환
▶ 공인언어능력지표 충족기준('26년 40%)	▶ 기준을 단계적 상향('30년 60%)
▶ 학업·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중심	▶ 프로그램 내용 중심 정성평가 강화
▶ 기관평가인증, 재정위기진단 연계 부족	▶ 기관평가 미인증, 경영위기대학 비자 제한

- (**실태조사 강화**) 대학이 유학생 교육의 최소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인증대학 실태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미달 시 비자발급 심사 강화제한
- (**강화평가지표 내실화**) 단순 요건 충족 여부나 실적 중심 평가가 아닌, 교육성과 및 대학의 개선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강화(제5주기)
 - (**어학 기준 상향**) 유학생의 실질적인 수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영어능력 지표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26년 40% 이상 → '30년 60% 이상)

※ 대학 언어능력 자체평가 미인정 및 통역을 활용한 이중언어 수업 금지 검토

※ 영어강의 운영비율 기준을 50→70%로 상향, 이수실태 점검 확대 등 영어트랙 관리 강화

<공인언어능력(한국어, 영어) 단계적 상향 계획(안)>

구분	제4주기				제5주기~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충족율 기준	30%이상	40%이상	45%이상	50%이상	55%이상	60%이상

- (**학업지원 강화**) 한국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필수 운영, 한국법령 이해 교육 확대, 온라인 강의 관리 등 학업 및 생활 지원 지표 개선
- (**교육성과 평가 강화**) 중도탈락율 등 단순 결과뿐만 아니라, 발생 원인과 대학의 개선노력 등을 함께 평가하여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

□ 부실대학 제재 강화

부실 대학의 신규 비자발급 제한 및 학사운영 관련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편법적인 유학생 유치를 차단하고 한국 유학의 신뢰성 제고

- (**신규 부실대학 유학생 모집 차단**) 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 경영위기 대학은 비자발급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차단(제5주기)
 - ※ 미인증대학 또는 2년연속 경영위기대학 선정 대학은 대학의 기본 교육기능이 정상 회복되기 전까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5단계(비자심사정밀대학)으로 분류
- (**강화 현장점검 확대**) 유학생 교육·관리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대상 현장점검 강화 (年 10개교 선정)
 - 과도한 집중 수업 등 부실한 학사운영, 인권침해 제보 등 중대한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불시 현장점검 실시
 - ※ 인증제 5단계 중 146개교(42.4%)가 4단계(컨설팅대학)~3단계(일반대학)에 해당

전략 3 유학생 적응·진로지원 강화

- ❖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졸업 후 진로 준비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확대**

□ 유학생 생활·정서 지원

대학의 생활·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교류·참여 기회를 확대 하여 유학생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 지원

- (**강화** **대학의 유학생 생활지원**)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지표 내실화*를 통해 학교의 유학생 지원 강화

* 유학생 상담·지원 프로그램 실적과 학생 의견수렴·환류 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 유학생 설문결과(연구재단 '26),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해결(53.9%)", "학교의 도움(15.1%)

대학의 유학생 적응 지원사례

- ▶ (**계명대** 학생 참여형 교류) 유학생 출신국에서 국내 대학생과 합동으로 해외봉사활동, 유학생자치회 운영, 지역문화 체험 등 유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비교과 지원 확대
- ▶ (**서울여대** 학생 주도적 활동 및 상담지원) 유학생 스텝 운영 및 현지어 안내 강화, 유학생 전문 상담원 및 성격검사·문화체험행사 등 지원
- ▶ (**울산과기원** 정신건강 및 문화적응 지원) 유학생 사전검사 및 영어 전문상담원 배치 등으로 정신건강위기 24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할랄食·기도실 운영 등 유학생 배려정책

- (**강화** **유학생 지역사회 교류확대**) 시·도 앵커사업, 교육국제화특구와 연계, 유학생-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 확대



유학생-지역사회·기업 연계 프로젝트



교육국제화특구 연계 유학생-지역사회교류

- (**강화** **상시 상담지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의 24시간 다국어 AI 챗봇상담 서비스(KORI, 모국어 기반)를 활용하여 상시 상담 지원
 - 장학금, 대학정보, 취업정보 등 유학생 관심정보 제공, 기초상담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사 심층상담 연계

- 상담 데이터(답변 품질, 상담 유형 등) 기반 기능 개선* 지속 추진

* 상담결과를 AI가 재학습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상담 정확성과 효과도 상시 제고 중

□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한국의 채용제도와 취업정보를 쉽게 이해·활용** 할 수 있도록 체계적·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 (**신규취업가이드북 발간**) 국내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 절차·직종별 정보·직장문화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취업 가이드북' 발간('27년~)

※ 유학생 설문조사 결과(연구재단, '26.), 대학의 취업정보·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긍정답변은 41.5%에 불과

외국인 유학생 취업 가이드북 발간계획(안)

- ▶ (**발간 목적**) 분산된 취업정보를 유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맥락으로 구성하여 국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 (**발간 언어**) 1차 한국어·영어 → 他 언어로 점진적으로 확대
- ▶ (**수록 내용**)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취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
 - 한국 채용 시스템 : 채용 절차(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 직종별 정보 : 산업별 채용 가능 분야, 직무 특성 및 요구 역량, 직종별 비자 요건
 - 직장 문화: 이메일 작성·전화 예절, 호칭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

- (**강화맞춤형 정보 제공**) 유학생이 설정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공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정보 제공 강화

- 유학생이 관심 지역·직군·채용형태 등을 설정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신규 채용공고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선별제공('27년~)

※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에서 중소기업공단, 사람인, 인크루트 등 각종 구인/구직 플랫폼의 외국인 구인정보 통합제공 중('26.上~)

전략 4 우수인재 집중지원

- ❖ **우수인재** 유치-양성-진출 쏠 단계를 **집중지원**하여, 한국 유학을 **우수인재**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 유학생의 지역산업 연계** 확대 지원

□ 전략적 장학지원 확대

학업·연구 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

- (**강화** **GKS 전략적 개편**) 이공계 해외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생(GKS) R&D트랙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장학 혜택 강화
 - ※ GKS 석·박사 중 이공계 재학생 현황 : 40.9%('25) → 43%('26) → 45%('27 목표)
- (**신규** **최우수 장학생 혜택 강화**) 우수 이공계 석사 과정생을 선별하여 박사 과정 연속지원을 허용하고,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성과격려금 신설('27년~)
 - ※ (현행) GKS 수혜 장학생 추가지원 제한→ (개선) SCI, SCIE, SSCI 등 논문 게재,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우수 연구실적 보유자 등은 상위학위 진학 시 추가지원 허용

GKS 장학생 우수사례

- ▶ (석사 '24卒, 인공지능)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 CVPR 2026에서 제1저자 논문 채택
- ▶ (박사 '26卒, 수의학과)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1저자 3편 등), 질병관리원과 공동연구 수행
- ▶ (석사 '26卒, 기술경영) 4.14/4.3 학업성적, TOPIK 6급,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다수
- (**신규** **정주혜택 확대**) GKS 장학생 대상 정주 관련 혜택* 확대를 지속 추진
 - * 우수인재 비자(F-2-7) 발급 시, 추가 가점 부여 등 검토(법무부 협업)
- (**지속** **우수 연구인재 지원**) BK21 연구장학금 지원*, K-STAR 비자 발급** 등 우수 연구에 참여하는 유학생의 학업·연구 지원을 계속
 - * 외국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참여 현황('25) : (전체) 6,216명, (이공계) 5,183명
 - ** BK21 연구우수대학 27교 및 국립과기원 5교의 경우 총장 추천서만으로 취업요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비자(E)가 아닌 거주비자(F) 발급 가능

□ 해외인재 우수학과 집중지원

유학생 인재양성 교육과정이 탁월한 학과를 선별하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우수인재 양성 모델을 확산

- (**신규**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 지역전략산업 수요와 연계된 해외 인재 양성 역량이 탁월한 학과를, ‘핀셋형’으로 年 10개 이내 선발('27년~)
 - ※ 2년 단위로 인증 갱신 여부를 점검하고, 총량을 30개 내로 엄격히 관리
- 신청 자격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단일 학과 또는 전공 단위
 - ※ 지역 취업·정주에 대한 객관적 실적이 있는 학과 지원 가능
- 평가 내용 :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인재양성 목적), 교육과정의 질, 어학·사회통합 역량(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기반(지자체 행·재정지원) 등

< 우수학과 인증 시 혜택 >

장학금 지원	인증 학과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우선 배정
홍보 지원	인증 부여 및 인증학과 홍보 집중지원
재정 지원	시·도별 앵커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현장실습·인턴십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규**우수 졸업생 인증) 우수인증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우수인재역량 보증제’를 통해 우수인재 집중육성('27년~)
 - 대학 :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전공·어학 등 교육과정 이수 및 학업성과 인증서 발급(마이크로 디그리 이수현황 등)
 - 기업 : 현장실습(OJT)·인턴십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실무역량 확인서 발급
 - 지자체 : 대학기업 인증 확인 및 일자리 매칭 후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 지역 취업·정주 관련 지자체 특례 활용 검토

- (강화 우수성과 확산)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우수교육모델 확산

제1회 유학생 취업·정주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 ▶ (전주비전대 학생 맞춤형 지원) 해외 현지에 운영 중인 '새만금한글학당(지자체 연계)'을 통해 우수유학생 유치, 도내 우수기업 1:1 매칭, 지역특화비자 취득 등 밀착적 지원 → 졸업생 중 취업자 54명(42.8%), 도내 정주자 85명(67.5%) 달성
- ▶ (경희대 역량인증제) KHU-PASS(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여, 한국어, 진로 설계, 문제해결프로젝트 등 프로그램 이수 결과에 따라 핵심역량을 단계별로 인증하고, 구직 시 바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배지 발급 → 프로그램 참여율(학기당 196→527건), 만족도 증가

□ 우수인재 네트워크 구축

한국 유학을 기반으로 국내·외 학술·동문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유학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확대

- (신규 국제학술 네트워크) 한국학(한국어)을 중심으로 한국유학경험 학자와 유학생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교류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유학 저변 확대(27년~)

한국유학경험 기반 국제학술교류행사(안)

- ▶ (한국학 학술행사) 한국어·한국문학 관련 국제 학술행사개최 및 논문발표 등
- ▶ (석학·유학생 교류행사) 행사참여 석학의 한국유학경험과 후속 진로선택 경험을 토대로 유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조언 제공
- 국가·대륙 별 학위 및 포스트닥터 연구과정 정보, 최신연구·고용 동향 등 공유

- (강화 GKS 네트워크) 정부초청 장학생 대상 찾아가는 장학상담, 동문 초청 연수 등을 통해, 국내 GKS 동문·장학생 간 상호 교류 확대
- 현지에서 GKS 동문회를 개최하는 등 친한·동문 네트워크 활동 지속

기반 1 법적 기반 확립

❖ 유학생 정책의 국가대학 책무와 지원·관리 근거를 법제화하여, 우수대학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부실대학은 실효성 있게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법령) 現 「고등교육법」은 행·재정적 지원만 선언적으로 규정*, 인증제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제재 불가

*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34조의7-①)

- (개정 방향) 유학생 유치·관리·교육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의무를 명시, 지원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26.下.)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①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② 협의체 구축 : 교육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협의체 구성
- ③ 유학생 정책지원 및 학위검증 지원기관 지정 :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지원기관 및 학위검증지원 담당기관을 법정 지원기관으로 지정·위탁하여 현장 지원 강화
- ④ 고등교육기관의 의무 :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학업·진로 지원 및 권익보호 책무. 모집대행기관(유학원) 활용 시 관리책임 등
- ⑤ 인증제 법제화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평가절차·결과공시·정책적 활용 등의 근거 명시
- ⑥ 실태조사 제도화 :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 입학, 학사, 취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⑦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유학 관련 업무 법령 위반 등에 대해 대학에 시정명령 근거 명시

- (행정지원체계 구축) 법무부, 산업부, 고용부 등 유학생 업무 유관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향후 유학생 정책 지원기관* 등 운영 추진

* 일본 JASSO, 프랑스 Campus France 등 주요국은 유학생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운영

기반 2 지역 발전과 연계

❖ **국내에서 양성한 해외 우수인재가 지역전략산업·뿌리산업 발전 등 지역발전 동력의 일부가 되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업**

- (**강화지역 활성화 정책 연계**) 지방정부와 협업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책 메뉴판*을 제공
* 시·도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정책 예시와 성과지표 등을 제시
- (**강화특례제도 연계**) 광역비자·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자체 특례제도와 지방정부 유학생 정책 간 연계·협업 지원

정책 예시

- ▶ (**광역형 유학생 지원센터**) 행정적 경계를 넘어, 5극3특체제 내에서 권역 내 유학생 지원·양성, 지자체·다부처협업, 대학 지원 등을 총괄하는 구심점으로 기능
 - 센터 기능(안) : 권역 내 외국인 채용희망 기업 DB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업-유학생 매칭, 인턴십프로그램 제공, 진로·상담·적응프로그램 등 종합 지원
- ▶ (**해외 현지학당**) 지자체 및 국내·외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에 한국어 학당을 구축, 현지에서 한국어 사전교육 및 유학 희망 우수학생 발굴·유치
 - 운영사례 : 현지에 OO학당 설치 및 한국어(60시간)·지역학(15시간) 사전 교육 과정 운영, 지역 내 대학 연계

- (**강화지역 간 협업**) 지역 앵커센터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공동사업 발굴 등 지역 경계를 넘어선 협업 추진

V. 향후 계획(안)

추진과제	추진일정							
	'26.下	'27.上	'27.下	'28.上	'28.下	'29.上	'29.下	'30.上
전략 1. 유치과정 투명성 제고								
1-① 해외학위 검증 내실화 -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안내	자료 안내	컨설팅	지속지원					
1-② 유학생 유치 책무성 강화 -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 안내	활용 권고		법령 개정					
1-③ 유학경로 및 정보제공 확대 - 교육박람회 및 유학입학서비스 지원	지속지원							
전략 2. 대학의 교육·관리역량 향상								
2-①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시행 - 평가체제 개편 및 평가지표 내실화	계획 안내	우수사례 확산 및 컨설팅	시행방안			인증 평가	5주기 시행	
2-② 부실대학 제재 강화 - 부실대학 모집 차단 및 현장점검 확대	점검강화	지속 점검						
전략 3. 유학생 적응·진로지원 강화								
3-① 유학생 생활·정서 지원 - 대학 생활지원, 지역사회 교류확대, 상시 상담 지원	계속지원							
3-② 유학생 취업정보 지원 - 「취업 가이드북」 발간,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알림기능 탑재	가이드북 발간						
전략 4. 우수인재 집중지원								
4-① 전략적 장학지원 확대 - GKS 전략적 개편, 우수 연구인재 지원	이공계 지원 강화	성과장려금 신설						
4-② 해외인재 우수학과 집중 지원 -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 우수 졸업생 인증		선발(1기)		선발(2기)		재인증		
4-③ 우수인재 네트워크 구축 - 국제학술 네트워크, GKS 네트워크		한국학 학술행사 신설		각종 네트워크 강화(계속)				
추진기반 – 법적기반 확립 및 지역발전 연계								
법적 기반 확립 - 고등교육법 등 법령개정		법령 개정						
지역 발전과 연계 - 정책메뉴판 및 가이드라인 안내	자료 안내			중앙-지자체 협업 계속				

붙임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 (목적)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모니터링하여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하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의 질 제고 도모
- (인증제, 신청 기반) 외국인 유학생이 20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 중 신청 대학의 국제화 전략, 유학생 지원·관리 등 심사(인증 주기 : 4년)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1~2% 미만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8~12% 미만
전략 및 선발 (2개 이상 충족)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전략 및 인프라 (4개 이상 충족)	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
	유학생 선발의 적절성		입학·수료 관리의 적절성
유학생 관리 (2개 이상 충족)	등록금 부담률 80%(전문대 70%) 이상	어학연수생 관리 (2개 이상 충족)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20명 미만
	한국법령 이해교육 60%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성과 (2개 이상 충족)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외국인 유학생 생활·진로 지원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성과 (2개 이상 충족)	중도탈락률 6~8%(전문대 7~9%) 미만	※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신입) TOPIK 3급 이상 (재학) TOPIK 4급 이상	어학연수생 수료율 50% 이상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40% 이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60% 이상
성과 (2개 이상 충족)	유학생 만족도 관리		

- (실태조사, 필수)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유학생 질 관리 유도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5% 이상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20% 이상
핵심 지표 (3개 이상 해당)	등록금 부담률 60%(전문대 50%) 미만	핵심 지표 (2개 이상 해당)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30명 이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40% 미만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핵심 지표 (3개 이상 해당)	단순 동영상 강의 수업 30% 초과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공인언어능력(재학) 15% 미만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30% 미만
핵심 지표 (3개 이상 해당)	공인언어능력(신입) 15% 미만		

※ 실태조사의 경우, 지표 요건에 해당 시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지정

[참고] 인증제·실태조사 결과 활용

우수 인증대학(매년 심사)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발급(대상 국가 확대)

인증대학(모니터링 대상)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발급(불체율 높은 국가 출신 유학생 제외)

미인증대학 (실태조사 대상) **일반대학** : 유학생 학력 요건, 재정 능력 등 심사

비자심사 강화대학 : **컨설팅대학**(명단 비공개) : 면담 등 정밀 심사

비자 정밀심사 대학 : 비자 발급 원칙적 금지

추진 과제 (38)		소관 부처	평가
1. 유학생 유치관문의 혁신적 확장 (4)			
1-1-1	교육발전특구 연계 유학수요 창출	교육부·지자체	● 완료
1-1-2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전략 기지화	교육부	● 정상
1-1-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교육부·법무부	● 완료
1-1-4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교육부·법무부	● 완료
2.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8)			
2-1 유치단계			
2-1-1-1	지자체 중심, 권역별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교육부·중기부	● 정상
2-1-1-2	지자체 공감대 확산	교육부·지자체	● 정상
2-2 학업단계			
2-2-1	한국어교육 강화	지자체·교육부	● 정상
2-2-2	K-MOOC 강좌 개발·운영	교육부	● 완료
2-2-3	진로탐색 기회 확대	법무부	● 완료
2-3 취업연계 강화			
2-3-1	분야별 실무인재 양성	교육부·산업부·중기부·복지부·법무부	● 정상
2-3-2	저숙련 근로자 학위취득 허용	법무부	● 완료
2-3-3	일자리 매칭 지원	지자체·중기부·국립국제교육원	● 정상
3. 첨단·신산업 선도인재 전략적 유치 (11)			
3-1 유치단계			
3-1-1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개편	교육부	● 정상
3-1-2	4단계 BK21사업 확대	교육부	● 완료
3-1-3	해외 우수연구자 등 연구활동 지원 확대	과기부	● 정상
3-1-4	해외 첨단분야 전문인력의 국내대학 임용(JA) 허용	교육부	● 완료
3-1-5	첨단·신산업 우수인재 정주지원 강화	법무부·과기부·산업부	● 정상
3-1-6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교육부·재외동포청·과기부	● 정상
3-2 학업단계			
3-2-1	영어트랙·강의 정보 제공 강화	교육부	● 완료
3-2-2	영어강좌 통계 및 정보 제공	교육부	● 완료
3-2-3	석·박사 유학생 대상 영어강의콘텐츠 개발·보급	교육부	● 완료
3-3 취업연계 및 정주 지원 강화			
3-3-1	이공계 석·박사생 일자리 매칭	중기부	● 정상
3-3-2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등 운영	법무부·과기부	● 정상
4.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유학저변 확대 (7)			
4-1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4-1-1	맞춤형 한국어 교육 실시 및 한국어 전문인력 확대	교육부·문체부	● 정상
4-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체제 개편	교육부	● 정상
4-2 잠재적 유학수요 극대화			
4-2-1	초·중등 유학 저변 확대	교육부·교육청	● 정상
4-2-2	국내 외국인 등 진학 확대	교육부	● 정상
4-2-3	교육ODA로 유학 수요 창출	교육부	● 정상
4-3 국가·대학 간 글로벌 교육교류 강화			
4-3-1	한·미 교류 확대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교육부	● 정상
4-3-2	전문대 국제적 위상 제고	교육부	● 정상
5.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8)			
5-1 범부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5-1-1	범부처 협력 강화	범부처	● 정상
5-1-2	유학생 D/B 구축	교육부	● 정상
5-2 단계별 관리 체계로 투명성·신뢰성 제고			
5-2-1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신뢰도 제고	교육부	● 정상
5-2-2	유치단계 투명성 제고	교육부	● 정상
5-2-3	입학 단계 적응지원	교육부	● 정상
5-3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체계 내실화			
5-3-1	스터디인코리아센터 협업체계 구축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 정상
5-3-2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전면 개편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 정상
5-3-3	한국유학박람회 확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 정상

□ (추진 완료 과제) 38개 중 11개 완료(9개 기 완료)

- (규제 혁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지역핵심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학 비자(D-2)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요건 적용
※ 10개 광역지자체, 총 배정인원 4,600명 / ('26.5.) 2,236명 광역형 유학 비자 취득
- (재정 지원) 교육연구단(팀) 지원 사업('20년~)을 통해 글로벌 교육·연구 환경 조성 및 BK21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대학원생 3,552명 지원
* 외국인 대학원생 BK21 연구장학금 지원인원(명) : ('22) 3,887→('23) 3,953→('24) 3,740→('25) 3,552
- (연구인력 유치) 해외대학 전임교원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26.5.)
※ 전임교원의 국내대학-해외대학 겸직 허용 특례 마련
- (데이터 관리) 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고등교육통계에 강좌별 영어강좌 여부를 추가*하여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및 정보 제공
* ('25년)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 수 → ('26년) 영어강좌 수 추가

□ (정상 추진 과제) 38개 중 27개 정상 추진

- (유치 확대)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한국교육원 중심 유학박람회 개최*, 한국 유학 관련 대학기관 간 MOU 체결**,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B2B) 지원 강화
* ('26) 총 15회 시애틀 인도네시아 동경오사카LA독일 호치민사태국 상파울루 비수켄인도 등
** 한국유학 지원 관련 MOU 체결('26.상) : 일본 관서지역 한국교육원 - 국내 12개 대학기관
- (분야별 실무인재) 국내 인력부족 분야에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취업 집중 지원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양성 분야 단계적 확대 추진 산업부중기부법무부복지부
- 지역산업 글로벌인재 취업선도대학*('26. 11개교), K-수출전사 아카데미** 등을 통해 실무경험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지원('25. 128명)
* 외국인유학생 대상 취업역량 교육 및 인턴십, 현장실습 등 실무경험 지원
** 유학생 대상으로 무역실무·마케팅 실습 등을 실시하여 지역 수출기업으로 취업 연계
- (장학 지원) GKS 프로그램 내 'R&D트랙'을 통해 이공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이공계 석박사 비율 확대('24. 39.2% → '25. 40.9%)
* GKS 석박사 관리인원 / 이공계 석박사 : ('24) 4,760명 / 1,864명 → ('25) 5,200명 / 2,126명
※ R&D 핵심분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연300명 규모로 선발인원 별도 배정

- (재외동포 DB 구축) 첨단분야에 종사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DB 구축 및 장학생 교류행사 등 추진하여 네트워크 지원 재외동포청
 - ※ (DB) 국가별 재외동포 장학생 인적 DB 구축(2,000명), 이 중 이공계 345명 (네트워킹) 국가·권역별 소모임 교류(13회), 장학생 교류행사(1회), 현지 간담회(4회)
- (취업혜택 확대)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하여 전문직종에 종사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1) 고용추천* 실시 중기부
 - * 고용추천 직종 : 데이터 전문가, 시스템 SW 개발자 등 24개 직종
 - ※ (기업) 고용추천 요청 → (중기부) 고용추천 및 비자발급 절차 지원 → (법무부) 비자발급 결정
- (정주 지원 강화)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K-STAR 비자 트랙」 확대·개편* 법무 및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26.6~) 과기부
 - * 법무부 선정 32개교 소속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 유학생 대상으로 △총장 추천서만으로 거주(F-2) 자격 부여 △영주권 취득 소요기간 단축(6년→3년) △연구실적 입증 시 특별귀화 가능
 - ** 최우수 과학기술 연구자 및 동반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 배우자 취업 활동 허용 및 영주 패스트트랙 혜택(5년→3년 거주),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정착지원 사업 우선 연계
- (초·중등유학 저변 확대) 학생·교사교류 등을 통해 한국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과 교사 교류('25. 108명, '26. 170명 교류 예정)
- (교류 확대) 폴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 프로그램 운영*, 한미대학생연수(WEST) 파견('25. 총286명 선발), 글로벌 교육 혁신 서밋** (GEIS) 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 수혜 인원수 : ('25) 31명(韓 19명, 美 12명) → ('26) 33명(韓 20명, 美 13명)
 - ** 연도별 참가자 현황: ('23) 200명 → ('24) 250명 → ('25) 300명
- (학위·학생교류)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한일중·아세안 국가 학생의 복수학위 취득 등 지원, DUO-Korea 장학사업 한국과 유럽 ASEM 회원국 간 교류 지원
 - * 사업 전체기간('11.~'26.2.)동안 복수학위 취득 709명(약 5.8%)을 포함한 총 14,509명 (한일중12,601명 + AIMS2,448명) 학생 교류 지원
- (협업체계 구축) 국립국제교육원 내 '스터디인코리아센터'를 중심으로 재외공관, 한국교육원, 대교협·전문대교협 등과 협업체계 구축
- (원스톱 유학서비스)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 사용 확대*, AI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상담체계 전환 등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 서비스 사용자 수: ('24.6월) 5,594명 → ('25.6월) 6,156명 → ('26.6월) 12,055명